

나의 개천절開天節 이야기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 병 훈

해마다 맞이 하는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금년 이 날은 나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창가에서 나 부끄는 태극기는 창공을 향해 손짓하고 온몸을 바람에 맡기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에 스며드는 태극기는 벽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에서 상업 관련 교과를 가르치는 나, 지도하는 제자들과 아들 양육 사이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한 인연으로 고대사 연구에 입문하고, 동생과 공동으로 고조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었지만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결심하고,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역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한국사 전공)에 진학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운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연구에 매진하여 금년도에 「신체호의 전·후삼한고에 대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한국사 전공)를 취득하였습니다. 변주승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격려와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인 단재(丹齋) 신체호의 전·후삼한고는 고조선과 삼한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고, 고조선 건국시점과 개천절이 연결되어 있기에 학위 취득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개천절은 나에게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첫 번째 국가가 건국했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 입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따르면 환국의 환인의 아들 환웅천왕이 천부인 3개와 3장수(백·사)와 5주부, 그리고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에 도착하여 신시를 열었고, 이후 환웅천왕이 곰토텐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단군왕검이 탄생하고,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천(開天)은 기원전 2333년 국조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천이란 본래의 뜻은 환웅이 환인의 뜻에 따라서 하늘문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천 연대는 단군의 개국 서기전 2333년 보다 124년 앞선 서기전 2447년

(上元甲子年) 10월 3일로 보며, 판단 자료로는 소강절 단군조선 124년 삭감설을 참고 할 만합니다. 개천절이 10월 3일 경축일로 제정이 된 것은 조선 말(1909년) 중광된 나철의 대중교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대중교는 일제의 단군말살 정책에 맞서 대응수단으로 10월 3일을 개천절로 단군의 선거일(仙去日)인 3월 15일을 여천절(御天節), 두 개의 대제(大祭)로 정하여 기념했었습니다. 10월 3일로 결정된 과정은 확실히 않고, 아마도 조선 시대 이래 단군 관련 제사 전통이나 민속 전승(10월 상달 중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이어졌고, 8·15 해방 후에도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공식 제정유지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화의 진행으로 단기(檀紀)를 폐지하고 서기(西紀)로 차용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건국이념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함께 개천절은 아직도 국경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천절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의 큰 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 우리 민족의 터전에 세워진 모든 국가들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국가정통성 문제와,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민족의 주류가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다는 민족정통성 문제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통성 문제는 고조선 이후 등장하는 국가의 영토 계승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군 중심의 민족 정통성 문제는 남북분단국가로서 소원인 민족 통일 문제에 구심점 역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조선 요동설을 포기하고 대동강설로 회귀하면서 단군릉을 복원하는 이유도 근본 원인은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필자가 연구한 단재 선생님의 전·후삼한고에서 보는 고조선은, 영역이 삼조선으로 요동(해성)·만주(하얼빈)·한반도(평양) 등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세운 고조선의 영역을 기준과 달리 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개천절을 통해서 고조선을 새롭게 조명하여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남북한의 통일교육으로 활용하고, 동북아 역사를 중국 중심의 역사로 재편하려고 획책한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분쇄하는 당면 역사문제의 장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슴속에는 개천절의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우리 모두 개천절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기를 기대해봅니다.

| 연구원 소식 |

고전문화강좌 진행 (2013. 10. 26)

'장 희빈, 잊힌 후궁에서 사극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순천대 HK 김아네스 연구 교수의 강좌를 열었습니다.

1968년 영화 요화 장희빈(임권택 감독)을 30분 정도 감상하였고, 악녀의 상징, 요부의 대명사, 역관 집안 출신의 궁녀, 원자의 어머니, 중궁전의 새 주인,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잊힌 후궁, 정쟁의 희생양, 사극의 주인공으로 부활한 장희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화 장희빈 영화를 통해 오래된 기억 속 장희빈과 낯설고 생소한 원로 배우들의 연기를 감상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변화, 왜곡되었는지와 숙종대 정치 현실 속에서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희생양이 된 한 여인의 삶을 깊이있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열정적 강의로 모두를 감동케 한 김아네스 교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독도 전시 (2013. 10. 1-2)

전주대학교 진리관 앞에서 독도 관련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나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전시를 관람하였으며, 관람자에게는 독도홍보리플릿 및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진행한 전시를 보고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독도사랑 클레이"에서 패널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독도 강의를 들었던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도 독도 행사를 준비하여 10월 30일~11월 1일 까지 패널 및 이젤을 대여해 갔습니다.)



송년모임안내

일시 : 2013년 12월 20일(금) 6시

장소 : 천년누리 봄(예정)

참가비 : 1인당 10,000원

일정은 확정이며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참석 기다립니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여 주세요.

회원 선물 배송예정

12월 중 연구원에서 마련한 선물 배송예정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신 회원분들은 미리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지

- 11월 9일 떠나기로 했던 역사문화탐방 "믿음의 길"은 인원 미달 및 길잡이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 10월 3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10~18시 전주문화재단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프로그램(전주문화재단 진행)이 우리 연구원 강의실을 대관하여 진행 중입니다. 목요일 연구원을 방문하실 때는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독도 청소년 강좌 (2013. 10. 1-2)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제4회차 독도청소년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숙정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강의에 협조해 주신 박병훈 전임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10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3. 10. 25)

연말 후원회원 선물 및 송년모임 장소 역사문화탐방추진여부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